

부동산협회, 28년만에 첫 영어권 회장

4세대 이민 마크 홍씨 차기 회장 선출 화제...한인회, 상의 이어 한인단체 세대교체 바람 뚜렷

수요화제

LA한인사회의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최근 한인회(회장 로라전), 상공회의소(회장 이은) 등 대표적인 한인 단체들이 1세에서 1.5세의 영어권 회장들로 자리바꿈하

조 전 회장을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이다.

마크 홍 차기 회장은 4살때 미국에 이민와서 자랐기 때문에 2세나 다름 없다.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영어권 회장 탄생으로 회원들은 앞으로 홍 차기 회장이 협회를 어떻게

“협회 이사 50여명 중 절반이 1.5세·2세 1세 회원들 도움받아 새로운 변화 모색”

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가 창립 28년만에 처음으로 영어권 회장을 선출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는 지난 10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및 이사장 선거를 실시, 단독 추대된 마크 홍(55)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케니

이끌어 갈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 차기 회장은 “한인사회가 이전 차세대를 끌어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위상이 미국 내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차세대들의 활약을 적극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영어권으로 처음 회장에 당선된 마크 홍 부회장(앞줄 왼쪽서 두번째)이 남승현 협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남가주한인부동산협 1.5세, 또는 2세대. 그는 “이제까지 1세 선배들이 잘

이끌어온 부동산 협회를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하고 “주류사회 부동산 업계와 나란히 견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의 길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차기 회장이 이번에 1세 회원들의 주축이 돼 이끌어온 부동산협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은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 바탕에 깔려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회사 ‘코러스(KORUS) 부동산’의 명칭도 코리아의 ‘KOR’에 미국의 ‘US’를 붙여 자신이 직접 만든 이름이다.

“무엇보다 협회원들을 돕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협회 뿐만 아니라 전체 한인 커뮤니티에도 기여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가수 백지영 히트곡 ‘사랑 안해’
“차은택이 작사했다”

요지경



고 해서 한 번 해보라고 했는

한국 담배, 한국 라면, 한국 과자 미국에서 ‘K푸드 열풍’ 이끈다

한국의 담배, 라면, 과자류 등이



말 현재 8492만 달드로 자리 잡았다. 라면(22.1% 증